

## 제주도민의 영원한 벗 '제주마'

천연기념물 제347호...말산업특구 지정으로 '말의 고장' 제2의 전성기 예고

데스크승인 2014.05.01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馬)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 이 말은 지역 차별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말의 고장' 제주를 대변하는 데 제격이란 점 또한 사실이다.

제주는 예로부터 최고의 말 산지로 명성을 떨쳐왔다. 광활한 초지, 온화한 기후, 맹수의 부재 등 말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덕이다.

역사적으로 제주가 말 생산을 위한 땅으로 부각된 것은 고려에 편입되면서부터. 고려 문종 27년(1073년)에 제주에서 말을 바쳤다는 문헌기록 등으로 미뤄 이 무렵 말이 제주 특산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종 14년(1273년) 몽골제국은 제주에서 삼별초를 평정한 후 말 사육의 최적지란 점을 주목해 몽골말 160마리를 들여왔다. 이후 몽골은 100여 년간 제주를 지배하며 목장체계를 정비해 말을 방목했다. 이후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몽골식 목장조직이 폐지되고 세종 11년(1429년)에는 도내

중산간을 10개 구역으로 나눈 국영목장, 즉 10소장(所場)이 설치됐다.

말의 고장이란 명성의 이면엔 제주인의 혹독한 애환이 서려있다. 진상이란 명목 아래 말들은 대부분 반출됐고, 목자(牧子) 등 제주인은 온갖 고역에 동원되고 모진 수탈에 시달렸다.

말고기는 과거 제주의 주요 진상품 중 하나였다. 왕족이나 지배층이 먹던 고급 식품이었던 셈이다. 실제 말고기는 기능성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말기름에는 피부보호물질인 팔미톨레산이 들어 있어 화장품 재료로 쓰이고 있다.

말은 제주인의 일상에서도 농사와 운송 등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척박한 땅에는 거름을 제공했다. 결국 말은 제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제주도 제주마'는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현재 천연기념물인 순수 혈통 제주마 163마리를 보호·사육 중이다. 최근 봄을 맞아 이들 제주마 중 119마리가 5·16도로변에 있는 축산진흥원 목마장에 방목돼 뛰놀고 있다.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가 재현돼 관광객과 도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사육 중인 말은 1만9900여 마리로 국내 말의 67%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을 포함 제주마 1840여 마리, 한라마 1만2900여 마리, 경주마 더러브렛 4800여 마리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말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 산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발전시키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제주도는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142억원을 투입해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과 승마 수요 기반 확충, 마육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한다. 1차 산업인 말 사육부터 3차 산업인 관광까지 두루 발전하는 '말의 고장'의 전성기가 예고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mailto: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